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1월의 책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월호

왜곡된 인간의 오만과 이성 풍자



“순수하고 정로운 ‘각자의 자신들’이 보는 사회는 썩을 대로 썩었고 ‘다른 사람들’의 행태는 짐승보다 못하다. 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탄의 대상인 ‘다른 사람들’과 한탄하는 ‘각자의 자신들’은 입장만 바꾸면 서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골적인 부패와 타락이 사실은 인간 본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이런 지경이라면, 풍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복잡 미묘한 인간에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냉소가 아니고서 어떻게 자신을 내 놓을 수 있겠는가. 냉소와 풍자를 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인간의 정면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걸리버 여행기’를 선정하며〉

어린 시절 읽은 동화책 삽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가 ‘걸리버 여행기’다. 인간의 12분의 1 크기의 아주 작은 소인국 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수레에 공경 묶여 실려가는 걸리버의 모습이나, 반대로 거인국에 간 걸리버가 이번에는 커다란 사람들 틈새서 좌충우돌하며 모험을 펼치는 모습은 어린 마음에 웅원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만 발췌·소개돼 아동소설로 분류돼왔다. 책 블랙 주연의 영화 ‘걸리버 여행기’ (2010)나 애니메이션 작품 등도 인기를 얻으면서 온가국이 좋아하는 모험물 정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는 아이들이 읽는 소설이 아니다. ‘소인국’, ‘거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의 나라’ 등을 포함, 모두 4부작으로 구성된 원작은 18세기 영국의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한 성인용 풍자소설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군주, 정치가, 귀족, 성직자, 문인, 법률가, 문인들을 풍자하고 인간의 오만과 왜곡된 이성에도 메스를 가한다. 당연히 책은 출간 당시 엄청난 인기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신랄한 묘사로 인해 내용이 삭제되거나 금서로

순진한 걸리버 환상 속 나라 여행

18세기 영국 정치 신랄하게 비판

개그맨 고명환과 유튜브 ‘북토크’

지정되기도 했다.

영국의 대표적 풍자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 (1667~1745)가 1726년 출간한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 ‘1984’ 등을 집필한 조지 오웰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으며, 다른 모든 책들을 파괴하고 오로지 여섯 권만 골라야 한다면 그 중의 하나로 이 책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평범한 지혜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비웃을 수 있는, 섬뜩하고 강렬한 비전을 지닌 작가”라고 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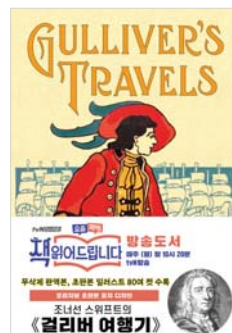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월의 책으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선정됐다. 걸리버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통해 부패한 당대의 정치사회와 인간 문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걸리버 여행기’는 출간된 지 297년이 넘었지만 수백년의 시간을 건너 여전히 우리 시대에 많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각 장의 주 무대로 등장하는 환상적인 4개 나라는 주인공 걸리버가 각각의 나라에서 다양한 시선과 방식으로 ‘인간’을 탐구하고 탐험하는 유용한 장치라 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청년 걸리버는 환상 속 나라로 떠난 모험을 통해 인간 본성과 본질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산’으로 불리며 인형처럼 작은 사람들과 부대끼 소인국 ‘릴리퍼트’의 삶을 지나 걸리버는 상황이 역전돼 생존에 몰두하며 모험을 거듭하는 대인국 ‘브롭딩낙’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 통찰을 얻는다.

또 완역본에 등장하는 3부에서는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 이외에 마법사의 나라 ‘글림프드립’ 등 다양한 환상의 나라와 일본 같은 실제 나라가 등장하며 ‘한국해 (Sea of Korea)’라는 지명도 삽화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마지막 4부인 말의 나라, ‘후이름’에서는 말이 인간 같은 이성 있는 존재로 그려지며, 야후라 불리는 인간 같은 괴물들이 존재한다.

‘걸리버 여행기’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삽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완역본인 ‘현대 지성’ 클래식 시리즈 ‘걸리버 여행기’는 일러스트의 대가 아서 래컴의 삽화를 삽입했으며 초판본을 표지로 삼은 ‘더 클래식’ 출판사의 ‘걸리버 여행기’는 초판본에 등장하는 80여컷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실었다.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와 최고수가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말새몸짓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2월 둘째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작가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화순, 아름다운 누정

화순군립천불천탐사진문화관, 3월 28일까지 사진전

‘누정 (樓亭)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다.’

화순군립천불천탐사진문화관에서는 매년 화순을 소재로 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화순의 기록문 화유산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화순의 풍광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이다.

올해는 ‘화순이야기Ⅲ-누정’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당초 지난해 10월 열 계획이었던 전시가 코로나 19로 연기돼 5일부터 3월 28일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박철수·임미숙·채수웅 작가의 작품과 일반 공모 당선작 30점 등 모두 54점을 소개한다.

박철수 작가는 민초들의 삶의 현장이자, 학문의

수련장, 교류의 장소였던 누정의 불여름가을겨울을 다양한 앵글에 담았다. 단청이 아름다운 ‘영벽정’을 비롯해 송석정, 임대정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임미숙 작가는 화순 지역의 다양한 누정을 촬영하며 ‘묵객 (墨客)의 시선’으로 주제를 좁혔다. 누정 안팎을 돌아보며 그들은 어떻게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했을까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촬영에 임했다.

화순의 지리사·문화 역사적 풍경을 꾸준히 카메라에 담은 채수웅 작가 역시 옛 선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누정 사진을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철수 작 ‘영벽정’

소설가 이승우 ‘마음의 부력’, 이상문학상 대상 선정

이승우<사진> 소설가가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 (상금 5000만원)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마음의 부력’.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사상은 4일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이승우 소설가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우수상(500만원)에는 박형서 ‘97의 세계’, 윤성희 ‘블랙홀’, 장은진 ‘나의 루마니아어 수업’, 천운영 ‘아버지가 되어주오’, 한지규 ‘야생심한 연극반’이 뽑혔다.

심사위원단은 대상작 선정 이유에 대해 “소설적 구조와 성격 창조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물 내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에서 단편 소설 양식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소설가는 장흥 출신으로 현재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1년 ‘한국



문학’ 신인상에 소설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생의 이면’ 등 대표작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번역 출판됐다. 황순원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국내 대표 문학상 중 하나인 이상문학상은 지난해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수상작가들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학사상사는 이러한 논란에 사과하고 불공정 논란이 된 계약 조건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